

日, 8월 한국 수출 9.4% ↓ ... '불매 직격탄'

반도체·기계류 38% 줄어

수출 9개월·수입 4개월째 감소

월간 무역수지 2개월째 적자

일본의 8월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9.4% 감소한 가운데 한국에서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출이 급감한 양상이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6조1천410억엔, 수입은 12.0% 줄어든 6조2천773억

엔을 기록해 무역수지가 1천363억엔(약 1조5천억엔) 적자로 나타났다. 수출은 9개월째, 수입은 4개월째 감소했고, 월간 무역수지로는 2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8월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전월(-2천496억엔)에 비해선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7.2%), 반도체 등 제조장비(-24.5%), 자동차 부품(-13.6%) 등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수출입 감소 추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교역 시장의 위축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지만, 한국과의 무역 갈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 달 간 일본의 아시아 전체 수출이 10.9% 감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은 4천226억4천600만엔(약 4조 6천491억엔)으로 9.4% 줄었다.

주요 품목 중 식료품이 40.6%나 급감해 24억5천500만엔(약 270억엔)에 그쳤다.

이는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본격 시작된 일본산 맥주 불매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기계류의 대(對) 한국 수출은 38.1% 감소한 231억3천300만엔(약 2천 545억엔), 유기화학물질은 17.1% 줄어든 202억1천900만엔(약 2천240억엔)에 머물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양국 교

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수입은 아시아 전체에서 10.0% 준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이 2천 403억4천900만엔을 기록하며 평균 감소 폭을 웃도는 10.3% 떨어졌다.

이로써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1천822억 9천700만엔(약 2조원) 흑자를 올렸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8.1% 감소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2.1% 떨어졌고, 중국에서의 수입은 8.5% 감소했다.

일본 재무성은 마·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것이 전체 수출액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중국은 자유로운 홍콩을 통치할 수 없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왕 홍콩 데모시스트당 비서장(왼쪽) 과 반(反)중국 성향 가수 데니스 호가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증언을 시작하기 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산혁명 주역 조슈아 왕

美의회 홍콩인권법 통과 촉구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위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왕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조슈아 왕 홍콩 데모시스트당 비서장은 전날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조슈아 왕은 "2019년은 역사의 분수령으로, 지금이야말로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자유로운 사회를 통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중국은 홍콩의 사회정치적 정체성을 빼앗으면서 홍콩으로부터 모든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슈아 왕은 12살에 운동가로 활동을 시작해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떠오른 홍콩의 저명한 청년 민주화 운동가로, 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돼지고기 대란' 중국

연휴 앞두고 국가 비축분 방출

중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탓에 주석인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국경철 연휴를 앞두고 국가 비축분을 방출한다.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중국이 오는 19일에 국가 비축 돼지고기 1만을 팔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국가의 돼지고기 비축분을 관리하는 중국비축상품관리센터는 냉동 돈육이 올라 인 경매를 통해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업체당 입찰량은 300t으로 제한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는 지난 11일 냉동 돼지고기 비축 물량을 방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짜리 국경철 연휴와 내년 초의 춘제(설) 같은 중요한 시기에 비축분을 풀면 시장의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업체 차이나데이터닷컴의 집 황은 이번 비축분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너무 적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비축분을 포함해 100만t의 냉동 돈육 재고가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릴 수 없이 퍼져자 돼지가 수 약 3분의 1이 감소해 돈육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8월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46.7%나 뛰었다. 7월에 27% 오른 데 이어 상승률이 8년만에 최고로 급등한 것이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는 지난해 5천600만t이었지만 줄어든 공급 때문에 올해는 5천200만t으로, 내년에는 4천800만t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아프간 자폭테러 48명 사망 1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미국대사관 인근 자살폭탄 테러 현장 주변에서 보안군이 한 남성을 검문하며 몸수색하고 있다. 이날 북부 파르완주 주도 차리카르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 대신 유세장 인근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로 26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도 카불에서도 22명 이상 숨졌다. 유세장에는 가니 대통령도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WP “트럼프, 비건 대북특별대표 국무부 장관에 지명할 듯”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실무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 보도가 다시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진은 17일(현지시간)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특별대표를 국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로진은 “정부 관계자 3명이 (이를) 확인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관련 결정은 발표 전까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비건 대북대표가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로 이동설이 돌고 있는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자리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난달 말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비건의 국무부 장관 기용설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리더십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진은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8월 대북특별대표로 지명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했다.

로진은 정부와 의회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외교 정책 전문가인 비건 대표가 대북정책을 놓고 ‘슈퍼 패파’인 볼턴 전 보좌관과 충돌하기도 했다면서 “비건은 북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짐검들로서의 중간 단계 합이, 이른바 ‘스몰 달’ 타결을 지지해왔다”고 소개했다.

비건 대표는 장관에 오르더라도 지금의 대북 실무협상 수석대표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승진 조치는 오히려 그에 대한 북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로진은 분석했다. 현재 국무부 장관인 존 설리번은 러시아 주재 미 대사로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美법무부, 스노든 회고록 발간 ‘비공개 의무 위반’ 소송

미국 정부가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6)의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16일(현지시간) 비공개 협약을 위반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노든이 회고록 ‘영구 기록’을 출판하면서 정부에 사전 열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현역 시절에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과 맺은 비공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디 헌트 법무차관보는 소장에서 “민감한 국가안보 정보를 보호할 미국의 능력은 정규·계약 직원들의 비공개 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개인들이 이를 어기고 미국을 희생시켜 사복을 채우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노든의 의무 불이행을 이

유로 회고록 출판에 따른 모든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제소를 통해 회고록 배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닌 셈이다.

법무부는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도 함께 제소했다. 그러면서 출판사측이 수익금을 해외에 망명 중인 스노든에게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노든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가 제소한 것보다 더 훌륭한 인증 스탬프를 생각하기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벤 위즈너는 스노든의 회고록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여하한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측의 의무 불이행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